

# 내전과 위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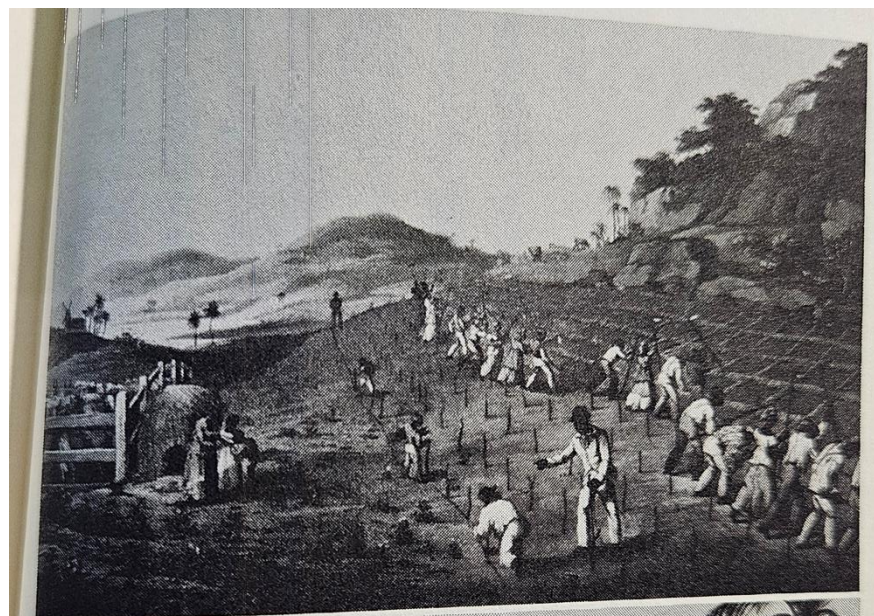
식민-자본주의 비판의 지평

김 항 (연세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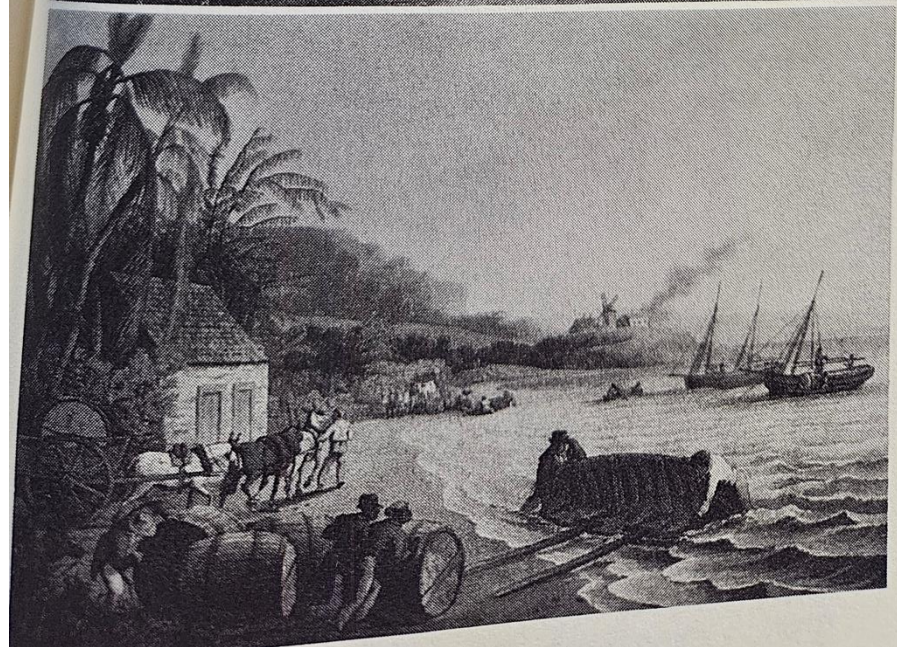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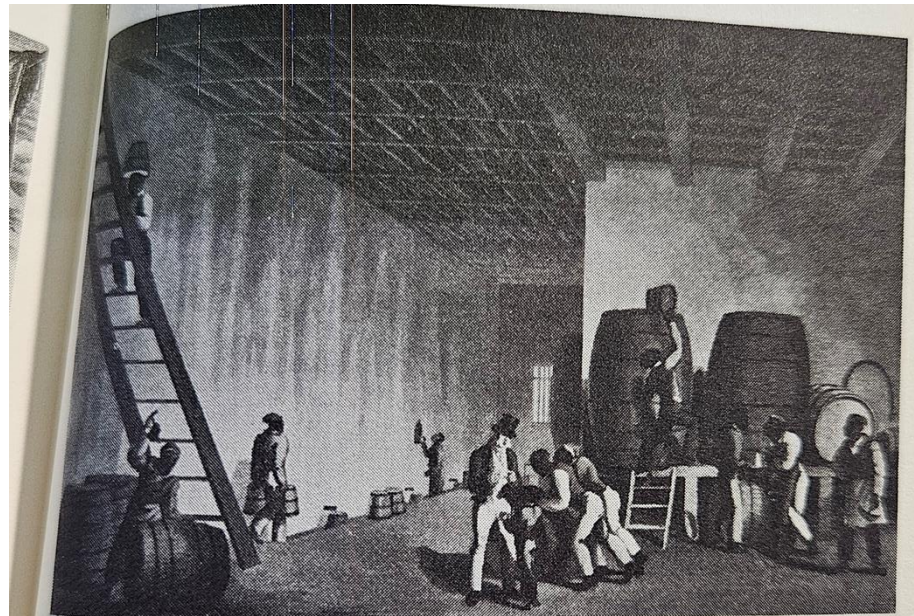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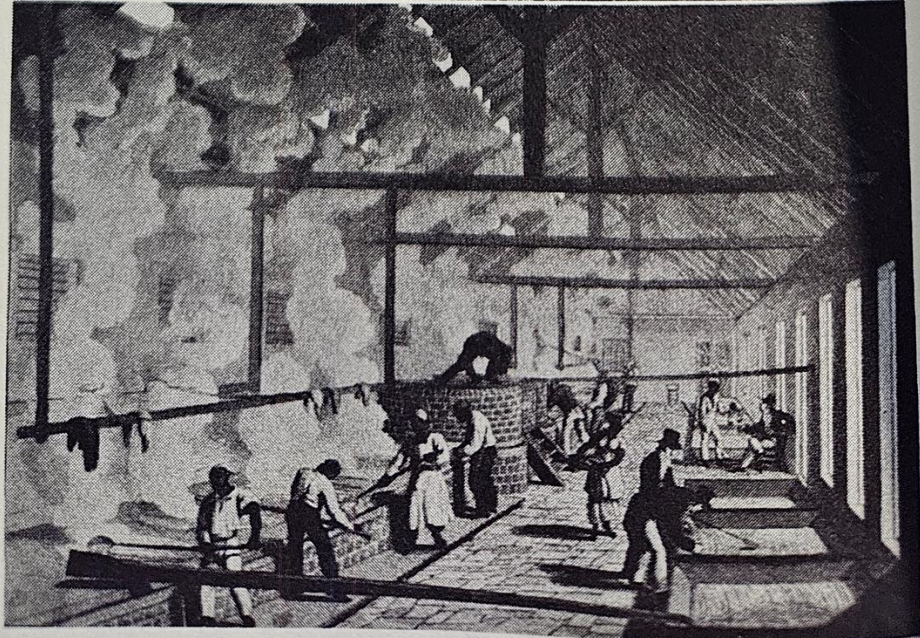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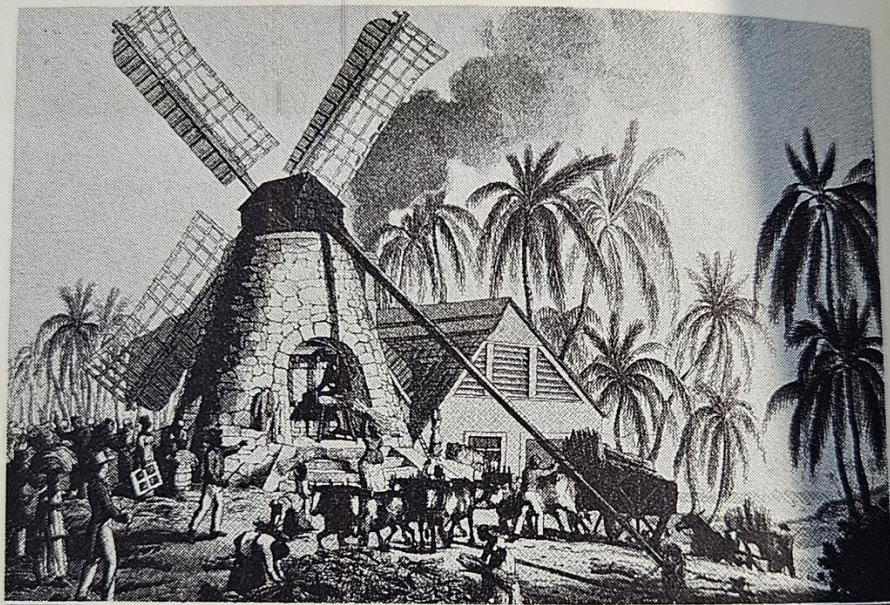
A-8 1663





プランテーションのようす(以下6枚は W. クラーク  
1823 年より)







# 식민-자본주의 비판

- 자본주의 생산체제를 상징하는 공간 : 런던? 카리브해 연안?
- 유럽에서 시작한 전지구적 확장이 아니라 식민지에서 시작된 체제
- 자유시장과 노동범주로 사람/세계를 균질화한 것이 아니라  
식민주의의 문명관을 통해 사람/세계의 차등화 방식을 재편한 체제
- 지역/국가의 문턱이 체제의 방해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 
시공간의 문턱을 끊임없이 재확정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관건
- 근대 정치이념(자유, 평등, 박애, 우애...)이 전제하는 인간이란 관념과  
식민-자본주의가 반복 재생산하는 사람/세계의 차등화 사이의 착종

# 내전

- 혐오에서 집단학살의 패러다임으로 : 르완다 학살의 속살
- Carl Schmitt, Der Begriff des Politischen (1927/1932)  
Leo Strauss의 문제제기, 바이마르공화국의 상황, 전쟁에서 내전으로
- 고전적인 Just enemy (주권국가체제-유럽공법)에서 enemy of all로  
대등하게 맞서는 전쟁 당사자가 아니라 보편주체의 적이라는 패러다임
- 군복을 입고 교전규칙을 따르는 전투에서 무질서한 게릴라전으로  
눈앞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을 수색/심문/고문으로 식별/색출
- 법치주의/의회민주주의/자유주의를 지탱하는 통치의 수행성

# 위생

- Can the subaltern speak? : tranparent라는 키워드
- 혐오 : 전칭적 집단의 수행적 성립 조건  
모든 연세인, 선량한 시민, 우리 민족, 인류....
- 근대 정치체제의 주체 : 먹지도 싸지도 숨쉬지도 않는 투명한 인간  
내전을 통해 식별/색출된 적들을 투사적 혐오의 대상으로 삼아 성립
- 식민주의 비판 : 투명한 인간에게 '육체'와 '계보'를 되돌려주기  
전향은 항상 투명한 인간으로의 귀순이라는 육체/계보 세탁으로 수행
- 완벽한 위생체제의 상상 : 유신헌법이라는 정치위생적 텍스트

# 인간

- 푸코의 물음 : 인간의 사라짐, 일정과 전망 없는 예언
- 유한성의 전도 : 사람이 죽는다는 전제 위에서 지식을 조직화  
노동,언어,생명으로 조직된 '유적 존재'라는 광기어린 발상의 등장
- 정치경제학 비판 : '전형' 문제, 수리경제학의 정치경제학 비판 침식  
노동가치론의 재생이 아니라 노동이란 범주에 대한 계보학적 비판 요청
- 육체의 자리 : 신학, 철학, 법학이 회피라는 조건 위에서 성립  
인간에게 육체를 되돌려준다는 과제와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?
- 프란츠 파농 : 사람과 사물과 자연이 공속하던 세계의 파괴된 흔적